

김남국 코인 논란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목소리

여야 의원, 요구 잇따라...국힘 지도부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논란이 커지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과연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수조사가 김 의원 비리의혹의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의원 전체로 이슈가 확장되면 김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수조사 논의는) 김 의원 의혹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고 나서 풀타기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의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낱알이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

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를 먼저 주장했던 걸 거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이 보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까지 거론했다.

전수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여야 지도부 차원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칫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이런 기류의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하드(콜드)월렛’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 등 최근 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콜드월렛이나 해외 지급처럼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보완을 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남국, 민주당 탈당 선언

“무소속으로 진실 밝혀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저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남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의 결정이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오광록 기자 kroh@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절충안 마련...내일 최종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절충안을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하고,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절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폭넓게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절충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금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

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율리 정부가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도 절충안에 담길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어서 정부의 재원 투입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재개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코인 논란’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께서 더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의도 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청서 전달

김승남, 일본 측외교의원회장에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측외교의원연맹 회장(중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3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전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작성한 요청



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톤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 방류가 아닌 육상 장기간 보관 및 방사능물질 제거 장치의 개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